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연계 교육을 위한 현황 분석

The Status Quo of Humanities-Based Museum Education Program

강인애*, 설연경**, 이소현***

경희대학교 박물관·미술관교육*, 용인대학교 교육공학**, 경희대학교 교육공학***

Inae kang(iakang@khu.ac.kr)*, Yeon-Kyung Seol(alale@yongin.ac.kr)**,
Sohyun Lee(creamtea@gmail.com)***

요약

최근 들어 인문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정책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인문정신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박물관의 역할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 하에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좀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문학과 박물관 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 분석틀과 설문을 개발하였다. 이후 이것을 2014년 전국의 75개 박물관에서 운영되었던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교육 담당자의 인식현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박물관 교육에서 인문학적 연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주제나 교육방법에서, 기존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차별되는 방향으로서의 선택과 수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인문학적 역량과 사고가 다문화시대라는 특징과 어우러지도록 교육주제가 확장되며, 배움의 실천성을 넓히기 위한 성찰적, 체험적 활동의 도입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인문학 | 박물관 교육 | 인문학 연계 | 박물관 교육 현황 |

Abstract

Humanities-collaborated practices in various fields have been supported by several governmental policies as a way to overcome recent social problems. Museum, due to its roles in preserving and sharing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for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communities, has emerged as a key base for the humanities-collaborated practices.

This study, in this context, aimed to analyze how the humanities-based museum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practiced in the museums, which, in turn, might provide a basic data for the futur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ograms and the related governmental policy as wel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link between humanities and museum education, from which a survey was developed. The survey was conducted to 75 museum educators who have been in charge of humanities-based educational programs.

The result showed that most programs seemed to reflect the basic direction and purpose of the humanities-linked with museum education. Yet, more needs were found in terms of the educational themes and methods which can facilitate multicultural literacy and reflective thinking and activities within experiential learning environments.

■ keyword : | Humanities | Museum Education | Humanities-based | The status quo of museum education |

*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사립박물관협회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기본교육프로그램 개발수탁사업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입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4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05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5월 20일

교신저자 : 설연경, e-mail : alale@yongin.ac.kr

I. 서론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물질문명, 자율경쟁은 지속적인 경제 불황 및 인간소외 문제 등을 야기해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인간의 가치, 내면에 대한 탐구가 재집중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1][2]. 실제로 인문학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인문 융복합의 경제적 가치[1][4]라는 방향으로, 또는 문화융성의 핵심 키워드로서, 그리고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계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다[1][3].

예를 들어,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을 강조하면서, 그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를 ‘인문·전통의 재발견’으로 설정하고 있다[3].

이렇듯 인문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속에서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이 대두하고 있다[3]. 그 예로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박물관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1]. 이 뿐만 아니라 ‘토요 인문학 정원’, ‘민속과 인문정신의 만남’ 등의 이름으로 박물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인문학을 박물관과 연계하여 일반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전파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4].

그러나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은 아주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에 반하여,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류해볼 때, 인문학의 경우, 인문 교육의 정책, 방향, 위기설[4-6], 대학에서의 인문교육[7][8][9], 인문학 교육방법[10][11] 등이 있었으며, 박물관 교육에서는 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12-14], 프로그램 개발[15][16], 테크놀로지활용 교육[17][18] 등에 대한 연구들로 진행되었으며, 이처럼 각각의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있었던 반면, 인문학과 박물관 교육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

었다.

그러나 박물관과 인문학의 연계는 박물관의 역할이나 특성을 살펴볼 때, 매우 분명해진다. 박물관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은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현장 보존유물과 유산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시대상과 문화적 특성을 함유한 교육현장을 제공하고 있다[12][13].

따라서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은 그냥 탈맥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 물건, 사태가 아니다. 그것은 관람객에게 구체적으로 특정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6]. 그리고 그 전시물의 의미와 가치는 관람객이 가진 생각, 경험,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련성을 찾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혹은 사회나 인류에 대한 성찰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16][19].

이러한 박물관의 특성을 전제해볼 때, 인문학과 박물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인문학은 크게 역사, 철학, 문학의 범주[20] 하에, 인간과 인간 존재의 삶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을 모색하는 학문이다[10][20][21]. 따라서 인문학 교육은 깊이 있고 폭넓은 지적 탐색과 더불어 정서적 공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및 도덕적·사회적·미적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을 길러냄을 목적으로 한다[5][10][22].

이렇듯 인문학 교육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탐색, 그리고 정서적 공감과 자기 성찰적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목표와 잘 부합될 수 있는 내적(방법론적), 외적(공간적)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박물관 교육이 된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문화라는 맥락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람객의 개인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만나게 되었을 때, 좁게는 자신에 대한, 넓게는 사회 공동체나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인간 가치 탐구의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박물관의 전시물이 지닌 이러한 태생적 특성을 인문학적 가치와의 만남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명백하게 했을

때, 다시 말해, 인문학을 연계한 박물관 교육으로 만들어 갈 때,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성찰적, 비판적 사고를 지닌 인간가치 탐구 교육의 산실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과 확장을 위해 노력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문학과 박물관 교육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 준거와 설문지를 마련한 뒤,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치중해야 할 방향과 내용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서 2014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참여기관인 전국의 75개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그곳에서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 분석결과는 박물관 인문학 연계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의 비교, 분석할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이 인문학을 연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바를 제시해주리라 기대한다.

II. 박물관 교육과 인문학

1. 박물관 교육의 특징

1.1 전시물 기반 학습

박물관의 핵심은 바로 전시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박물관에서의 교육 역시 전시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물이 주는 교육적 의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시물은 일반 텍스

트가 주는 단편적 정보와 달리 상황성, 맥락성 등의 전시물이 존재했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복잡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전시물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전시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탐구활동(Minds-on)의 기회를 제공한다[16][23][24].

둘째, 전시물은 학습자에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활동(Hands-on)을 제공하기도 한다. 박물관에서 원본 전시물이 아닌 재현된 전시물을 활용하여 직접적이고 다중적인(시각, 청각, 마각, 촉각, 후각) 감각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학습결과를 읽기, 쓰기를 넘어서 만들고, 행동하고, 창작하는 다양한 표현활동을 끌어내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텍스트 중심의 일차원적이며, 추상적인 학습방법이 아니라 실물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표현에 기반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환경을 의미한다 [16][25].

셋째, 전시물은 학습자에게 정서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감성적 활동(Heart-on)을 가능하게 한다. 전시물은 특정 시대나 사회의 공동체 혹은 개인의 가치관, 관점, 그리고 감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전시물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느끼는 최초의 반응은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이 된다. 이는 그 전시물 자체에 함유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체험이자 향유적 경험을 의미한다[29][30][52]. 나아가 박물관에서의 감성적 활동은 전시물에 대한 학습활동이 개인의 자기표현을 넘어 다른 학습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 기회가 되며, 그들과의 협력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배려와 공유, 공감과 같은 인성 교육에 필요한 정서적, 감성적 경험을 하게 된다[26-28][47].

결국, 박물관에서의 전시물 기반학습은 사회나 인간 삶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맥락적 학습 환경이며, 그로 인해 학습자들의 정서적 반응과 실천적 활동에 기반을 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다.

1.2 자기 주도적 학습

박물관 교육이 학교 교육에 대하여 우위를 가질 수

1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주최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있는 조건의 하나는 박물관은 비형식 기관으로서,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른 학습활동을 넘어서서 좀 더 넓고 다양한 내용과 방법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6][18].

우선 박물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박물관은 단순교육(강연, 강좌, 세미나)에서 시작하여 체험교육(미술조형활동, 전시감상, 교구놀이 등 전시물과 관련된 체험활동, 현장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12-14].

실지로 근래에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교육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직접적인 강의는 점차 지양하고,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창작 및 감상활동의 체험학습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전시물에 대한 개인 학습자의 관심과 경험에 따라 전시물을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 과정이 반영된 학습결과를 거기에 발표하고 인정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습 환경은 분명 학습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와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16][26][27][33][44][47].

이는 박물관의 전시물이 지닌 맥락적 다양성과 실재성, 구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개별적 경험, 관심, 지식을 발휘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어, 결과적으로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 자기 주도적이고 탐구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16][18].

특히 박물관 교육에서의 자기 주도적이고 탐구적인 학습 활동은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자신의 경험에 기인한 반성적인 사고 및 활동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반성적, 성찰적 사고 및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16][18][48][49].

2. 인문학의 특징

2.1 인간과 사회의 이해

인문학은 학자에 따라 의미와 영역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20][36]. 즉, 인간의 존엄, 삶의 가치 등 보다 근원에 관계된 학문 영

역으로 경험과학과는 구분되고 있다.

인문학적 탐구대상은 현존하는 문학작품과 예술작품, 역사적·종교적·철학적·인류학적 저서들을 중심으로 하며, 이러한 창작물들과 저술 등을 통해 인간성을 모색하고자 한다[37]. 따라서 인문학의 지적활동은 인간의 반성적 성찰 표현, 자기의 정체성 발견, 인간다운 속성 탐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22][37].

인문학을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우선 한국연구재단 연구 분야 색인정보(2013)에 나와 있는 학문분류에 따라서, ‘사천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기독교 신학, 가톨릭 신학, 유교학, 불교학, 언어학, 문학, 통역번역학’ 등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학문분류(2012)에 따르면, 대분류 ‘인간’에 해당하는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학,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를 인문학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문화·예술·체육’의 분야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의 범주에 너무 넓게 접근하면, 인문학 융합의 의미로 되어 인문학의 특성을 다소 희석될 소지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의 영역을 흔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주, 곧 ‘문학, 역사, 철학’[4][20]으로 한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인문학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및 바람직한 삶의 가치 추구를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볼 때, 인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한할 수 있다[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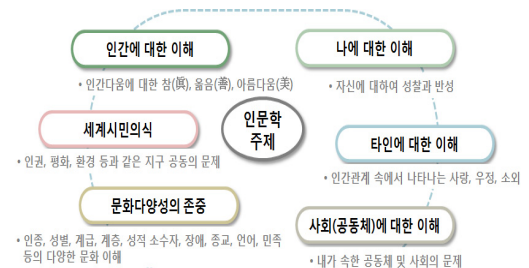


그림 1. 인문학 주제 분류

첫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다움에 대한 참(眞), 율음(善), 아름다움(美), 자유로운 삶 등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39]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나에 대한 이해'는 자신에 대하여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21] 등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셋째, '타인에 대한 이해'는 나와 나 외의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우정, 소외 등에 대해 탐구하고 나아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의미[40]에 대해 탐구한다. 넷째,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작게는 학교, 공동체, 지역사회, 크게는 내가 속한 사회, 나라를 아우르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 삶의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기 위한 사고의 활동[39]을 전개한다. 다섯째, '문화 다양성의 존중'은 다양한 문화(인종, 성별, 계급, 계층, 성적 소수자, 장애, 종교, 언어, 민족 등)에 대한 이해, 수용, 포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41][56]. 마지막으로 여섯째, '세계시민의식'은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권, 평화, 환경 등과 같은 지구 공동의 문제[42]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 상황[50][51]에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영역은 그 중요성을 새롭게 하고 있다.

2.2 자기 성찰적 사고

의학이나 생물학, 자연과학 일련의 사회과학들도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고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문학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달리 인간 자체에 대한 탐구와 가치의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5][20] 여기서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방법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자연과학은 실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론 중심으로 하고, 인문학은 반성적, 비판적이거나 사변적, 성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5][7][21].

인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과 그 삶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본질적 가치는 자신과 사회를 다양한 시각에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폭넓게 이해하여 자율적인 인격을 고양하는 데 있다[10][20].

따라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단순히 지식과 기능으로서의 인문학 분야에서 발췌되는 리터러시가 아니라, 비판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20]. 인문학의 탐구적, 자기 성찰적 사고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형성 및 자기 결정의 활동을 하게 되는 자유의 주체로서의 인간 형성에 이바지하게 되며[7], 이는 탐구의 주체로서 자신이 상황에 대입되어 구체적 실천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실천 연관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7][21].

교육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인문학의 자기 성찰적 사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함을 논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여 윤리·도덕적 문제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격 소양 측면이며[10][21], 둘째는 인문학적 방법의 훈련을 통한 논리력, 창의력, 사고력 증진 등 역량개발 측면이다[46].

3. 박물관 교육과 인문학 연계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인간을 포함한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맥락적이며, 상황적이며, 포괄적인 학습콘텐츠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학습콘텐츠가 및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인지적, 오감적, 정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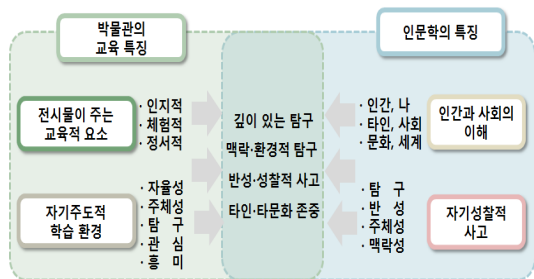


그림 2. 박물관 교육과 인문학의 연계성

박물관의 전시물은 탐구(인지), 오감(체험), 감성(정서)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게 되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하기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인문학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 내용인 이해와 존중, 세계 시민의식 등과 맞물린다.

또한, 박물관의 교육환경의 특징인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은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전시물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인 ‘인간과 사회의 이해’를 다루기에 적합하다. 인문학 역시 자아 성찰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여 주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 상황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물관의 전시물을 기반으로 탐구 및 오감, 정서적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교육환경은 인문학 연계교육에 부합한 환경을 다각적인 측면(깊이 있는 맥락적 탐구, 반성적 사고 및 타문화에 대한 존중)에서 제공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연계교육의 특징 및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박물관내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박물관에서 인문학 연계교육에서 좀 더 고려해야할 점들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조화된 개방형 분석틀 및 설문지를 가지고 75개의 박물관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첫째, 2014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했던 75개 기관(상반기 기준)의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둘째, 이를 담당했던 교육 담당자 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설문조사의 연구 기간은 2014년 4월 중순~5월 초 한 달간 진행되었고, 총 8명의

연구 인원이 참여하였다[표 1].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박물관의 인문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하기 위해 각각 박물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수업지도안과 교육담당자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다[표 1].

표 1.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 대상	박물관 내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교육담당자 인식조사
조사 일시	2014.4.19~5.01	2014.4.29.~5.09
자료 수집방법	각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83개 수업지도안 수집	설문 응답 후 이메일 회수
조사 방법	구조화 된 분석틀로 조사	구조화 된 개방형 설문지 분석
조사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초,중,고 •교육내용 : 인문학 영역, 인문학 연계 •교육주제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사항 : 박물관명, 담당자명, 박물관 내에서의 역할 •교육내용 : 인문학 영역, 인문학 연계 교육주제 •인문학 연계 교육방법
조사 분석 개수	75개 기관의 83개 교육프로그램 (75개 기관 중 8기관은 서로 다른 주제의 2개 프로그램 운영, 각 교육프로그램은 120분 기준, 교육은 각 학교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해 진행)	75개 기관 중 65부 회수(86.7% 응답)

먼저 각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해당 박물관에서 보내온 수업지도안을 갖고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표 2].

표 2. 분석틀

순번	박물관 명	프로그램명	대상				미적체험요소			
			초	중	고	기타	탐구 활동	체험·창작	평가·성찰	관련 없음
교수학습방법										
전시물 관람	전시물 탐구	토론	제작 활동	창작	협동 학습	발표	이론 강의	외부 강연	성찰	기타
인문학 영역					인문학 주제					
문학	역사	철학	관련 없음	자아 인식, 표현	타인, 타문화 수용	세계 시민 의식	성찰적 사고	관련 없음		

[표 2]의 프로그램 분석들은 앞서 이루어진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주제, 교육 방법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우선, 프로그램 내용 및 주제 분석은 인문학의 개념 및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4][20][22][37]를 근거로 인문학 영역(문·사·철)과 인문학 주제(인간·나·타인·사회·문화다양성·세계시민의식 이해 및 존중)를 도출, 분류하였다. 이때 어려웠던 점은 인문학 주제 자체가 본래 매우 융합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어느 한 영역에만 속해있지 않고 중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을 구별된 인문학 주제 어느 하나로 선택, 분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분석들에서의 교육방법 영역은 박물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12-14]를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어서 완성된 분석들 초안에 대한 타당도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

표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내용

조사내용	개수	실시 기간	대상 인원	응답자
• 인문학 주제의 적절성	인문학 주제(6)	4월 08일 ~15일	6명 교수 3명, 교사 1명, 박물관장2명	3명
•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체크리스트 내용의 적절성	단계별 체크리스트 (61)			
• 종합적 의견				

이후에 완성된 프로그램 분석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박물관 교육 전문가 5인이 참여하여 전문가가 3인의 1차 분석, 그리고 이후 전문가 2인의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이어서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분석들(교육주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개방형 설문이지만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항목을 제공하였다. 본 설문지 구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박물관 인문학 교육현황분석 설문지 구성

구분	설문지 구성			
	분 류	세부 내용	설문 항목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1	
	인문학 연계 교육 내용	인문학 영역	문학, 철학, 사학	4
		인문학 주제	-자아 인식, 표현 -타인, 타문화 수용 -세계시민의식 소양 -성찰적 사고	5
	인문학 연계 교육 방법	전시물 관람/ 전시물 탐색/ 토론/ 제작활동/ 창작/ 협동활동 / 발표/ 이론 강의(시정각학습)/ 외부강연/ 성찰/ 기타	2,3	
교육 담당자 인식	인문학 내용	인문학 영역	인문학 교육이란	4
		인문학 주제	진행중인 인문학 프로그램 주제, 기존의 프로그램과 인문학 프로그램의 차이점	1, 3, 4, 6,
	인문학 연계 교육 방법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방법, 박물관 인문학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2,3, 5	

IV. 박물관내 인문학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

1. 프로그램 내용 분석

1.1 교육 대상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연계 교육프로그램들의 교육 대상 조사에서 94%(78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중등학생(74.7%)과 고등학생(38.6%)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기존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였고, 상대적으로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적었다[그림 3].

비록 입시라는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실행[53] 및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34][38][47], 인간과 사회의 이해, 자기 성찰적 사고의 함양이라는 인문학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중등학생, 고등학생)으로도 확장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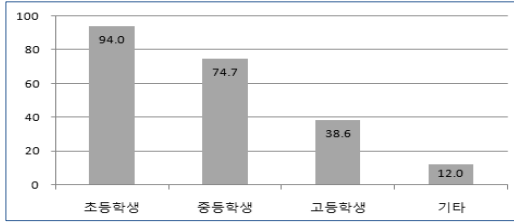


그림 3. 프로그램 참여대상 (n=83, 단위 %)

1.2 인문학 영역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서 인문학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기본인 인문학 교과 영역 요소를 분석해 보았다. 교육프로그램 중 인문학 교과 영역인 문학, 역사, 철학으로 분류 가능한 프로그램은 80%였다. 철학 중 1개 영역만을 활용하는 경우는 72.3%(60개)였고, 2개 이상의 영역을 활용하는 경우는 7.2%(6개)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역사 영역이 65.1%(54개)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문학, 철학 활용도는 각각 14.5%, 7.2%로 나타났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주로 유물을 지니고 있는 박물관에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쉽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본 결과로 봤을 때,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연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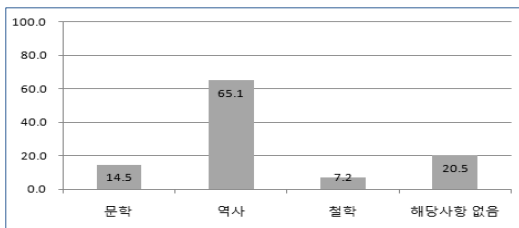


그림 4. 인문학 주제 영역 연계 (n=83, 단위 %, 중복응답)

1.3 인문학 주제

현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아인식, 표현’에 대한 주제가 45.8%(38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환경, 기아, 난민, 평화, 인권 등의 ‘세계시민 소양’에 대한 주제는 8.7%(7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인문학적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33.7%(28개)로 인문학 교육의 차별화가 없

는 프로그램도 많았다[그림 5].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가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아인식 및 표현을 넘어서 세계시민 소양, 비판적 성찰적 사고, 타 문화 수용이라는 측면도 교육의 주제로서 적극 다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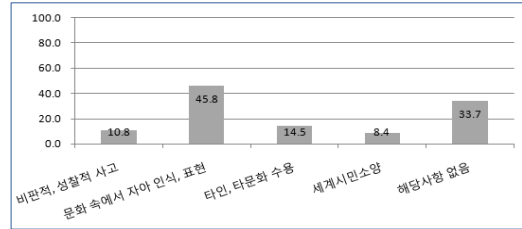


그림 5. 인문학 교육 주제 현황 (n=83, 단위% 중복응답)

1.4 인문학 연계 교육방법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강의’(61.4%)였다. 다음으로는 전시물 관람(55.4%), 장비나 간단한 재료를 활용한 제작활동(51.8%)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연계한 현장학습이나 특정 장비를 착용하거나 체험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반면에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성찰·평가할 수 있는 전시물 탐색이나 협동학습, 토론, 성찰 등의 활동은 활용빈도가 적었다 [그림 6].

그러나 현재 박물관 교육의 주요 이론들이 체험, 탐구, 참여적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중요한 인문학역량으로서 비판적, 성찰적 사고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기 주도적, 탐구적, 체험적 학습활동이 더욱 적용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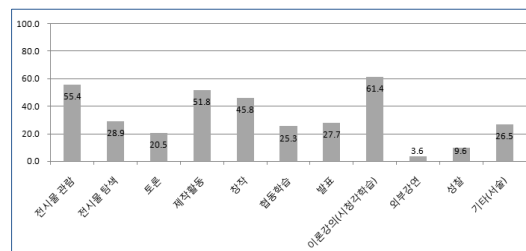


그림 6. 교수학습방법 (n=83, 단위 %, 중복응답)

2. 교육 담당자의 인식 분석결과

2.1 인문학 영역에 대한 인식

교육담당자들은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과 관련 있는 인문학 영역으로 역사 44.6%, 철학 26.2%, 문학 23.1%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7].

이는 현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주제가 주로 역사에 집중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인문학 연계교육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문학, 역사, 철학 각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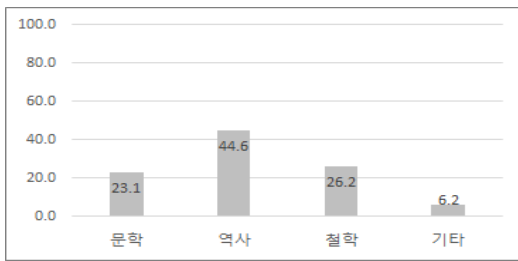


그림 7. 인문학 교육 영역 (n=65, 중복응답)

2.2 인문학 주제에 대한 인식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연계 교육주제에 적합한 주제로서는 '나에 대한 이해'(26%)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22%)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해'(21%)로 보고 있다. 반면에 무응답은 7%에 이르렀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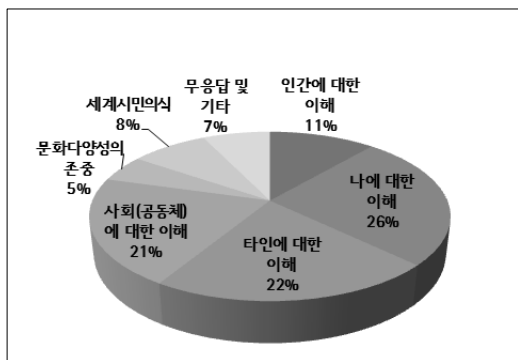


그림 8. 인문학 교육에 적합한 주제 인식조사 (n=65, 중복응답)

2.3 인문학 연계 교육방법

교육담당자의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시물 기반학습(5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기반 활동(16%), '교육을 통한 실생활 적용'(14%)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창작, 미술, 음악 등으로 재해석'과 '창작과 움직임을 통한 표현활동' 등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생각과 느낌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는 실천 의지, 실제 생활에 지식의 적용 등 체험교육과 실생활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지로 운영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들의 인식과 달리 이론 강의나 전시물 관람, 제작 활동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교육담당자들의 인식과 실제상황에서의 적용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각 박물관마다 여러 가지 상황(공간, 교육비용, 시간, 담당 인원)에 따른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45][56],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에듀케이터 교육과 학예사 연수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박물관 교육방법에서도 참여적, 체험적, 탐구적 교육방식을 지향하고자 한다는 연구[16][26][27][33][44][47]를 고려할 때, 인문학연계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교육방식에 대한 연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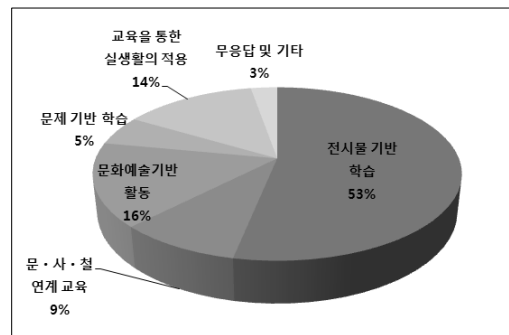


그림 9.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교육방법(n=65, 중복응답)

V. 결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인문학적 사고, 인문학적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 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문학 연계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

하여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이라는 정부사업을 통해 박물관과 인문학 연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 올해 이 사업은 3차 연도에 이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 인문학연계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박물관, 인문학 연계교육이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측면으로 접근해보았으며, 나아가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교육담당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현황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전의 다른 성격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참여 박물관들이 주로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역사 영역과의 연계가 제일 많았으며, 주제에서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라는 내용 하에 '자아 인식과 표현'의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시청각 교육과 전시관람,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의 박물관 교육의 방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박물관 담당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왔으나, 다만 교육방법에서 실제 운영상황과는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곧, 대부분이 인문학 연계프로그램은 좀 더 성찰적,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탐구적, 체험적, 참여적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강의, 전시물관람, 단순 체험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현황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박물관에서 인문학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인문학 연계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이 인문, 정신문화의 가치 확산을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초등중심의 교육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박물관과 연계하여 대상을 확장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도입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까지 확장되고자 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박물관에서 인문학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이고, 타인 및 타문화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인문학연계교육을 통해 비판적, 성찰적 사고를 키우고, 다문화 시대에 자신의 이해만이 아닌 타문화, 타인에 대한 이해, 문화 다양성의 존중,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등이 절실하다.

둘째, 교육주제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박물관,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의 주제가 역사영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문학 및 철학 영역을 연결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지로 박물관의 전시물 기반학습이 비단 전시물의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전시물을 활용한 문학활동(창작활동, 연극활동 등)이나 철학영역(시대적 관점,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을 위한 방법적 측면으로 박물관 교육의 특성인 전시물 기반학습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시물을 중심으로 유물에 대한 맥락적 탐구, 자기 생각의 적극적 표현, 그 과정 중에 경험하는 반성적 사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적 활동을 통한 공감, 공유의 경험 등이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성찰적, 비판적 사고, 타인(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부분을 실천하기에 매우 적합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 인문학 연계교육 현황은 기존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이나 주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인문학 연계 교육은 인문학의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현실에 대한 다양하고 포용적인 시각과 관점을 함양하여 자율적인 인격을 고양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사고 방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

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담당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박물관 교육에서 인문학적 연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박물관 교육의 특성과 인문학적 사고 및 역량을 더욱 견고히 연계하여, 교육주제나 교육방법에서, 기존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차별되는 방향으로서의 선택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인문학적 역량과 사고가 다문화시대라는 특징과 어우러지도록 교육주제가 확장되며, 배움의 실천성을 넓히기 위한 성찰적, 체험적 활동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연계 박물관 교육은 인문학 분야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박물관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에 이르기까지 확장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제안점은 본 연구가 2014년 상반기 기준 사업 참여대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에서의 인문학 연계 교육에 대한 전체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비형식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박물관의 노력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이 인문학 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기본연구 2013-35, 2013.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융성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 11주년 기념 대토론회, 2013.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 2014년 주요업무계획, 2014.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기본연구 2013-54, 2013.
 [5] 최현철,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소고”, 시민인문학, 제23권, pp.183-214, 2012.
 [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ER&D Network, 제159권, pp.1-27, 2007.
 [7] 손동현,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 인문과학, 제7집, pp.203-231, 2006.
 [8] 차제순, 이재현, “자유교육의 전통과 하버드 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385-392, 2014.
 [9] 맹광호,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의학 교육: 과제와 전망”, 한국의학교육, 제19권, 제4호, pp.5-11, 2007.
 [10] 신상규, “독서토론을 활용한 통합인문학 교육: 독서토론과 인문학 교과목 운영에 대한 사례발표”, 사고와표현학회 제4회 학술대회 논문집, 65-85, 2008.
 [11] 이광모, “인문학에 대한 G. 비코의 이념과 교육 방법”, 해결연구, 제26권, 단일호, pp.149-168, 2009.
 [12] 채교문, 정진주, 최효승, “국내 박물관의 체험활동프로그램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제1호, pp.13-21, 2004.
 [13] 박소영, “박물관을 활용한 초등학교 역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 사설기관 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6권, pp.70-102, 2012.
 [14] 박진아, 정아영, 공순구,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 교육, 운영, 지역연계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제5호, 통권106호, pp.146-156, 2014.
 [15] 강인애, 서세민,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수업 사례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pp.249-276, 2011.
 [16] 강인애, 설연경,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학습 이론으로서 전시물 기반학습(Object-based learning)에 대한 사례연구”, 조형교육, 제33권, pp.1-38, 2009.

- [17] 강인애, 설연경, “온라인 학습환경으로서 가상박물관(Virtual Museum)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4호, pp.458-470, 2010.
- [18] 방선희, 이효진, 경효정, “박물관 교육을 위한 스마트플 어플리케이션 설계 원리 및 프로토타입 개발”, Korean Journal of Learning Sciences, 제6권, 제1호, pp.45-64, 2012.
- [19] 이용섭, 김순식, “생태 박물관 전시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영재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한국환경과학회지, 제19권, 제10호, pp.1283-1291, 2010.
- [20] 김우영, 이병승, “인문학적 리터러시의 의미와 교육적 함의”, 증등교육연구, 제61권, 제4호, pp.901-930, 2013.
- [21] 명지원, “교양교육에서의 인문학의 역할: 클레멘트스쿨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학년도 춘계 심포지엄 자료집, pp.225-238, 2009.
- [22] 이상옥, “한국 인문교육 진단모형과 정책대안의 종합적·단계적 추진 전략”, 인문사회연구회, pp.1-128, 2003.
- [23] M. Borun, *Object-based learning and family groups*, In S. Paris (Ed.), *Perspectives on object-centered learning in museums*, Lawrence, NJ: Erlbaum Associates, 2002.
- [24] A. Alvarado and P. Herr, *What is object-based learning?* In A. Alvarado & P. Herr, *Inquiry-based learning using everyday objects* (pp.3-11), NY: Corwin Press, 2002.
- [25] A. Kennedy, enhancing pupil learning on museum visits, Retrieved 20, Sep. 2012 from <http://www.open.edu/openlearn/education>
- [26] 강인애, 민진아, “PBL 기반 어린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효과에 대한 비교연구-한방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제35권, pp.1-31, 2009.
- [27] 강인애, 홍혜주, “PBL에 의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경희대학교자연사박물관의 사례연구”, 조형교육, 제34권, pp.1-38, 2009.
- [28] 설연경, “문화예술활동 기반 교육의 의미와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과의 관련성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제8권, 제4호, pp.179-200, 2013.
- [29] 존 듀이, 이재언 역,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2009.
- [30] 맥심 그린, 문승호 역, *블루 기타 변주곡: 맥신 그린 박사의 링컨 센터 인스티튜트 강의록*, 서울: 다빈치, 2011
- [31] 설연경, 강인애, “문화예술활동 기반 교육에서 미적경험이 주는 교육적 효과 분석을 위한 루브릭 개발”, 조형교육, 제46권, pp.165-197, 2013.
- [32] M. F. Holzer, “Aesthetic education, inquiry, and the imagination,” Retrieved March, 12, 2009, from <http://www.lcinstitute.org>
- [33] 강인애,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이론과 학습환경*, 최종호 외 (공저), 한국박물관교육학, pp.117-157, 서울: 문음사, 2010.
- [34] 김형숙,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한국도동미술교육학회, 제32권, pp.1-29, 2012.
- [35] 강인애, 설연경, 이소현 외 5인,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기본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립박물관 협회, 2014.
- [36] 김석수, “21세기 사회에서 로컬리티와 인문학”, 철학연구, 제107권, pp.91-116, 2008.
- [37]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동지의 철학을 위하여*, 지와사랑, 2009.
- [38] 진선자, “문화예술교육과 인문학적 바탕”, 한국문화과 예술, 제8권, pp.103-127, 2011.
- [39] 최희봉, “인문학, 인문학 실천, 그리고 인문치료”, 인문과학연구, 제25권, pp.327-345, 2010.
- [40] 고미숙, “체현과 도덕적 정서교육”, 한국윤리교육학회, 제21권, pp.91-107, 2010.
- [41] 홍병선 외 4인, “인문학 교육 실태 분석 및 진흥방안 연구” 정책 2011 - 위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1.
- [42] 설규주,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제43권, 제4호,

pp.31-54, 2004.

[43] I. A. Kang and S. H. Lee, "A Conceptual Framework for Smart Museum Education," In Museums and the Web Asia 2014, N. Proctor & R. Cherry (eds). Silver Spring, MD: Museums and the Web. Published October 2, 2014.

[44]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서울:예경, 2005.

[45] 양지연,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권, pp.36-53, 2002.

[46] 김호연, 유강하, "인문학 교육의 역할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 K중학교 '인문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60권, 제1호, pp.83-107, 2012.

[47] 신재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박물관 교육탐색", *한국예술연구*, 제9권, pp.207-230, 2014.

[48] 강선주,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 제16권, pp.7-35, 2012.

[49] 김민정,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역사 학습", *역사교육연구*, 제16권, pp.37-68, 2012.

[5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반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기본연구* 2010-04, 2010.

[51] 차운경, "한국 다문화교육의 실제", *다문화교육 심포지엄 자료집:문화예술기반 다문화교육 인력 양성의 새로운 모색*, 서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24, 2012.

[52] 에릭 부스, 강주현 역,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서울: 예코의 서재, 2009.

[53]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 (2013.05.28.보도자료)

[54] 강인애, 이재경, "시각문화 미술교육을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사례 연구", *조형교육*, 제45권, pp.37-65, 2013.

[55] 이승진, 정남용,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 제27권, 제1호,

pp.101-115, 2014.

[56] 이병준, 이경아, "사립박물관 경영자의 핵심역량 분석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1-16, 2014.

[57] 서은숙,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제9권, 제1호, pp.417-427, 2009.

저 자 소 개

강 인 애(Inae Kang)

정회원



- 1983년 2월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영문학 학사)
 - 1985년 2월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영문학 석사)
 - 1988년 2월 : Indiana University영문학(영문학 석사)
 - 1995년 2월 : Indiana University. 교육공학(교육공학 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물관. 미술관 교육 및 교육공학 전공주임교수
- <관심분야> : 구성주의, 박물관교육, 문화, 예술교육

설 연 경(Yeon-Kyung Seol)

정회원



- 2003년 2월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미술 학사)
 - 2006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교육공학 박사)
 - 2012년 : 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 2013년 ~ 현재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 교수
- <관심분야> : 미적경험, 인문학, 문화예술기반 교육,

이 소 현(Sohyun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교육학 학사)
- 201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문화예술행정 석사)
- 2014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교육공학 박사 수료)
- 2014년 ~ 현재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관심분야> : 박물관 교육, e-learning, 문화예술교육